

## 우리나라 정보화산업의 산실 한국통신 이상철 시장으로부터 듣는다.

1998년 1월 WTO에 의하여 기본통신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유럽 연합의 통신인프라스트럭처 완전 자유화 체제가 출범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간에 1999년 7월부터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는 등 일련의 상황전전은 자국산업보호 장벽이 철폐되고 무한경쟁시대로의 돌입을 명문화함으로써 국제 통신분야 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구조의 개편과 점유를 목적으로 자국시장내 경쟁체제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 또는 경제블록화를 꾀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제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와 사업단위에서도 이런 관점들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 협력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각급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과 아울러 특히 IMF 경제체제 이후 산업구조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통신사업을 경제회복의 대체산업으로 이끌어 올리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인 한국통신 이상철 시장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외 통신산업의 동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공익기업으로서의 한국통신의 역할과 통신산업의 중장기 비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대담 : 홍 완 표 / 광운대 교수

Q1. KT 시장으로 취임하신 후 경영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영혁신의 요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KT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운 경영목표는 궁극적으로 KT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도전 정신이 살아있는 기업,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업,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기

업 그리고 모든 직원이 행복하고 신명나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약 1년동안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야 할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영혁신의 요체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

우선 투명한 경영을 위해 e-KT 프로젝트 15개 과제를 도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업부분별로 투자, 매출·수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ABC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경영 상황이 파악되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경영 의사 결정을 합리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수익과 연결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서비스별로 고객의 반응과 개선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때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15개 프로젝트가 완료 시행되면 목표치 만큼의 투명한 경영이 실현되고 고객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익창출, 도전정신,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간중시 경영과 스피드

경영입니다. 제가 취임시 KT를 뛰는 공룡으로 만들겠다고 한말이 기억납니다. 스피드 경영을 위해 사규를 절반 이상으로 이미 줄였으며, 의사 결정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행으로 해 오던 결재 과정을 대폭 축소, 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가 즉석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시 경영 일환으로는 인사제도 개선,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고용안정위원회 가동, 종합적인 직원 교육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문제는 현재 KT가 민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9월에 실시한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번 『우리 쌀 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혁신에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IT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금년 매출 및 이익이 작년대비 약 15%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도록 저희 모든 직원은 푹푹 뭉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앞에서 간단하게 경영실적을 언급해주셨는데, 현재 KT는 유선전화 통화 수익 감소, 민간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 등 KT의 경영이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년의 경영 실적과 향후 수익 구조 개선 계획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 9월말과 금년 9월말까지의 경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매출액은 12% 증가한 8조5천억원,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1조3천억원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동안 전

임·직원이 인터넷 사업과 새로운 신규 사업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매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화통화료 수입 및 LM 수입은 약 1% 정도 감소하였고, 인터넷 등 새로운 사업에서는 약 200%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구조의 시사점은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KT의 주 수입원인 유선사업만으로는 KT가 더이상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ADSL 인터넷 사업도 우리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미래 수익 사업으로는 유무선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통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정보를 실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중소기업 또는 개인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탈사업,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발굴, 독립된 통신 네트워크와 정보가 동시에 필요한 고객을 위한 시스템 통합 사업, 그리고 KT의 초고속 노하우를 통한 해외 진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에 e-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고 있고, 지난 9월에 해외사업부문을 강화하였습니다.

별써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알려져 일본, 중국 등의 통신업체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미래 수익사업이 구체화되어 상용화 될 때에 수익구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리 KT가 여러 선진 통신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Q3. 근래의 세계 정보통신 사업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KT의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 사업의 주요 이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신뢰성 높은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는 서비스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에 어떻게 올바른 대응을 빨리 하는지 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초고속 통신 구현의 문제는 Last 1 mile 구간 즉 가입자망을 어떤 기술과 방법으로 구축하는가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xDSL, CATV모뎀, 광케이블이 적용되고 있지만 트래픽 증가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각 방식의 기술 진화와 더불어 서로 융합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혼용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자 방식의 기술진화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유선만으로는 고객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에서는 유·무선의 통합된 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준비작업 중에 있고 내년 초에는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이슈인 서비스간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유선, 무선 시장이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시장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선서비스가 무선서비스 특성을 갖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고, 무선서비스가 유선서비스 영역을 수용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객들은 편의상 유·무선통합서비스(Bundling service) 요구도 점점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무선 서비스간 그 영역이 확실치 않아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저희 KT는 무선·데이터 자회사와 위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서비스 경

쟁구도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콘텐츠 부분과 정보 관련 solution 기술 분야를 취약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분야는 타기업과 제휴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KT 임직원은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류 기업으로 남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Q4.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의 하나로 위성통신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95년 무궁화1호 위성을 발사한 이래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한국통신 위성사업의 사업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KT의 초기 위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명확한 사업방향이나 비전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였고, 또한 수입 창출 극대화와 노력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용 중계기 활용률이 100%를 육박하여 금년도 매출액이 약 7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출자회사인 KDB가 위성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더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궁화위성은 통신·방송 복합위성입니다. 따라서 타사업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통신·방송이 융합된 차별화된 첨단 서비스를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략적 수단으로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궁화위성2호가 2005년에 수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체위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성사업은 위성 수명 초기부터 위성 활용률을 높여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5. IMT-2000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통신이 하나의 사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현재 IMT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선 시장은 인터넷 가입자 및 이동통신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MT사업이 개시되는 200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2억7천만명 이상, 2004년에는 7억5천만명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ARC Group에서 예측하였습니다. 이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IMT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IMT-2000 서비스가 확산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T-2000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면, IMT 단말기는 작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 및 정보 표현의 제약을 어떻게 해결하고 유사 서비스간 메뉴의 향해 구조를 어떻게 단순화하여 고객들에게 친숙한 서비스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선인터넷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IMT-2000의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활용 제고와 망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 경쟁력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KT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KT아이컴을 금년 3월에 출범시켰고 2002년 상용화 서비스 출시를 위하여 단말기 개발은 물론 유무선 포털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자들

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KTF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Q6. 한국통신은 국내 통신산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그동안 내수 진작을 선도해 왔습니다. 한국통신 자체 사업의 효율적 수행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산업의 균형적 발전 촉진에도 큰 기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지적의 소리에 대한 사장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IT사업의 침체로 국내 기업들이 요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 예산 3조6천억원 중 상반기에 2조1,600억원을 조기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예정된 투자 예산을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KT에서 투자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외부에서 위원회 역할을 투자 축소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그러한 지적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관련 업체들에게 몇 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을 고려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분야 또는 사업분야별 투자시기, 규모를 조정하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국내 업체 사장님들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업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KT가 업체에게 바라는 내용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 하에서는 서비스 사업자인 저희 KT와 제조업체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7.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식과 기술이 내재된 우수한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한국통신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십시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인력이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라 평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맞게 우리 KT 사원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원 능력 육성의 궁극적 목표는 사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의 정신을 가지며, 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종합적인 교육 마스터 플랜을 거의 완료 중에 있으며 금년이 가기 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작정입니다.

Q8. 정보통신업계에 몸담고 계시는 이 사장님의 경험과 해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충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서비스 공급시장의 확대와 온라인 경제 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시장 개방의 확대와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갈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하루 빨리 우리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의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미리 확보하여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신사업 관련 기업들 모두는 고객이 원하는 보다 양질의 서비

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우리나라가 선진정보화 국가로 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 대담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사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